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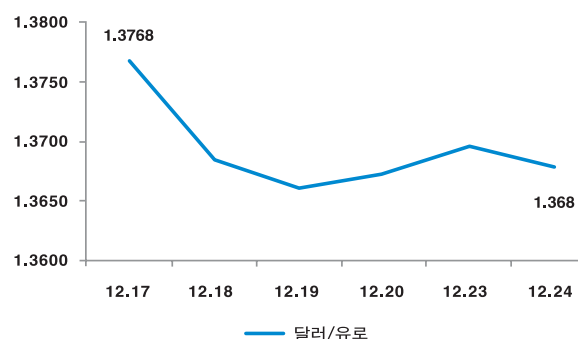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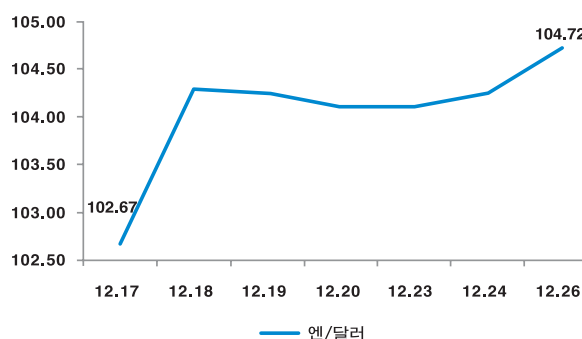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8일(현지시간) 2012년 9월부터 실시해 온 국채 및 모기지증권 매입(제3차 양적완화) 규모를 2014년 1월부터 매월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100억달러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의 이번 조치로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지속되어온 발권력에 의한 경기부양 정책은 이제 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된다.

양적완화 축소조치 발표 이후 미달러화는 주요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은 17일 102.67엔에서 26일 104.72엔으로 상승하였으며, 유로화에 대한 미달러 환율은 17일 1.3768달러에서 24일 1.3680달러로 하락하였다. 미국 및 일본 주가도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다. 미국 S&P 500지수는 17일 1,781.00에서 24일 1833.32로 2.93% 상승했으며, 일본 니케이225지수도 15,278.63에서 16,174.44로 5.8% 상승했다.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의 유통수익률은 2.932%에서 2.982%로 0.05%포인트 오르며 3%에 근접했다.

연준의 금번 결정은 미국의 고용, 산업생산 등 경제활동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국 경기의 상승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가격경쟁력 때문에 특히 엔화 환율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2013년 4월부터 시작한 연간 60~70조엔 수준의 자산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엔화가 더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일 경우 엔화에 대해 원화는 지금보다 더욱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원/엔 환율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등 일부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및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수요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최근의 환율 동향 ■



자료 : bloomberg

세상 둘러보기

2012년 지역소득 분석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2012년 동남권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전국(1.9%) 및 수도권(1.9%)의 성장률을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GRDP 중 동남권의 비중(명목가격 기준)은 전년과 같은 17.5%이다.

명목기준 개인순분원소득(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재산소득)의 경우 2012년 동남권은 3.2% 증가하여 전국(3.7%) 및 수도권(3.9%)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 개인소득은 16개 시·도 중 울산과 부산이 각각 1위와 3위, 1인당 민간소비 역시 울산과 부산이 2위와 4위로 상위권을 차지하여 동남권의 소득 및 소비수준이 양호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 1인당 개인소득 및 민간소비 ■

(단위 : 만원)

1인당 개인소득	– 상위지역 : 울산(1,831) , 서울(1,753), 부산(1,505)
1인당 민간소비	– 상위지역 : 서울(1,751), 울산(1,413) , 경기(1,381), 부산(1,368)